

까다로운 팀들 피했다...한국 남자축구 대진표 무난

도쿄올림픽 조추첨...온두라스·뉴질랜드·루마니아와 한조 사상 최고의 성적 도전...7월 22일 뉴질랜드와 첫 경기

한국 남자축구가 2020 도쿄올림픽 조별리그에서 무난한 대진을 받아들였다. 한국은 21일 스위스 취리히의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에서 진행된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조 추첨식에서 온두라스, 뉴질랜드, 루마니아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김학범 감독 지휘 아래 세계 최초로 9회 연속(통산 11회)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른 한국은 2012년 런던 대회 동메달을 뛰어넘는 올림픽 출전 사상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 첫 관문인 조별리그 조 추첨에서 1포트에 배정됐던 한국은 2~4포트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던 팀 중

◇ 2020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조 편성
A조 =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프랑스
B조 = 뉴질랜드 한국 온두라스 루마니아
C조 = 이집트 스페인 아르헨티나 호주
D조 = 브라질 독일 코트디부아르 사우디아라비아

까다롭게 여겨진 멕시코, 이집트, 프랑스를 모두 피하고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것으로 여겨진 팀들과 같은 조에 이름을 올렸다. 김학범호는 7월 22일 오후 5시 가시마 스타디움

에서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 뒤 25일 오후 8시 같은 장소에서 루마니아와 2차전을 펼친다. 이어 28일 오후 5시 30분 요코하마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온두라스와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선다. 한국은 첫 상대인 뉴질랜드와는 역대 올림픽 대표팀 맞대결에서 역대 3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 온두라스와의 올림픽 대표 상대 전적에서도 2승 1무 1패로 앞서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8강전에서 0-1로 진 바 있다. 리우 올림픽에서 온두라스는 최종 4위에 올랐다.

루마니아와는 올림픽 대표 단위로 맞붙은 적이 없고, A매치만 1994년 2월 한 차례 치러 1패를 기록했다.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에는 16개국 참가, 4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2위까지 8강에 진출해 단판 승부를 벌인다. 개최국 일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프랑스와 A조에서 경쟁하고, C조에선 이집트, 스페인, 아르헨티나, 호주가 만났다. D조엔 리우 대회 금·은메달을 차지한 브라질, 독일이 코트디부아르, 사우디아라비아가 뒤편이다. /연합뉴스

누가 강등후보라 했나...광주FC의 반전

후반 43분 수비수 이한도 헤더골 강원 원정경기 1-0 짜릿한 승리 K리그1 4승...11R 일정 마무리 24일 대구와 홈경기서 연승 도전

광주FC가 짜릿한 승리로 11라운드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주는 지난 20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강원FC와의 K리그1 2021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43분 나온 이한도의 헤더로 1-0 승리를 거뒀다. 시즌 첫 토크를 도는 날, 광주는 수비수 이한도의 시즌 2호골로 연패를 끊으며 기분 좋게 '첫 대결'을 마무리했다. 신예 선수들의 '깜짝 활약'과 광주의 팀워크가 돋보인 11경기였다. 애초 광주의 2021시즌에는 우려의 시선이 더 컸다. 김호영 감독이 "시작 후 6경기는 힘들었다. 선수단이 늦게 구성됐고, 훈련을 다 같이 모여 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할 정도. 새로 광주 지휘봉을 잡은 김호영 감독은 지난 12월 23일에서야 처음 선수단과 마주했다. 뒤늦게 사

령팀이 바뀌면서 '김호영호' 구성에 시간이 걸렸다. 또 지난 시즌 팀의 첫 파이널 A를 이끈 외국인 선수 윌리안과 아솔마토프가 팀을 떠났고, 검증된 카드 펠리페도 부상으로 출발이 늦어졌다. 외국인 선수 없이 시즌을 시작한 광주에 '셋별'이 빛났다. 지난 시즌을 통해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발돋움한 엄원상이 불오른 실력을 보여주며 '에이스' 역할을 해냈다. 광주 유스 출신의 엄지성도 패기 넘치는 질주로 광주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엄원상의 부상 공백에서 기회를 얻은 이희준도 엄지성과 함께 광주의 힘을 보여줬다. 중원에는 '캡틴' 김원식이 있었다. 새로운 팀에서 주장 완장을 찬 김원식은 공-수를 조율하며 승점 사냥 전면에 섰고, 그라운드 밖에서도 주장으로 팀을 지휘하며 핵심 선수가 됐다. 7라운드 인천 홈경기를 통해서 든든한 지원군도 가세했다. 새 외국인 선수 헤이스와 알렉스가 광주의 새 전력으로 투입돼, 9개월을 기다린 광주 전용 구장 첫 승의 현장에 함께 했다. 지난해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한도는 강원전 결승골 등 2골을 기록하며 '골 넣는 수비수'로 눈길을 끌었다. 진정으로 돌아온 윤보상은 선방 퍼레이드를 펼치

며 '최후의 보루'로 맹활약하고 있다. 윤보상과 함께 올 시즌 친정으로 복귀한 송승민, 이찬동도 광주 전반 질주에 힘이 됐다. 무엇보다 '베스트 11'없는 경쟁'을 예고하며 다양한 옵션을 만든 김호영 감독의 전략과 특유의 팀워크가 잘 발휘되면서 광주는 순위싸움의 '복병'이 됐다. 쉽게 지지 않는 승부로 광주는 적장들의 찬사를 받았다. 김호영 감독은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선수들이 더 뚝뚝 뚝뚝 조직력으로 하나가 됐다. 공격에서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수비적으로도 한 단계 상승했다. 2라운드에서는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 순위와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 33라운드 순위가 중요하다. 우리 팀은 조직적으로 더 변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수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다.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4승 1무 6패(승점 13)로 순위싸움의 첫 번째 반환점을 돈 광주는 올 시즌 가장 많은 4골을 폭발시켰던 대구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 경기는 24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강원전 1-0 승으로 11라운드 일정을 4승 1무 6패로 마무리했다. 사진은 송승민(오른쪽)이 강 원전에서 공을 드리블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여자계주 유지연, 한정미, 강다슬, 정혜림(왼쪽부터).



혼성계주 장지용, 한정미, 유지연, 이준(왼쪽부터).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광주시청 육상 강다슬·한정미·유지연 '2관왕'

전국육상대회 여자 일반부 4×100m·혼성 4×400m 릴레이 우승

광주시청 강다슬, 한정미, 유지연이 제25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경계75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 2관왕에 올랐다. 강다슬-한정미-정혜림-유지연이 나선 광주시청은 21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일반부 4×100mR에서 46초33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정혜림이 1번 주자, 그 뒤를 이어 강다슬, 한정미, 유지연이 호흡을 맞춰 2위 안

동시청(46초86), 3위 시흥시청(46초94)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여자일반부 1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강다슬은 계주 우승으로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계주에 앞서 열린 여자일반부 200m에서는 강다슬이 은메달, 유지연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강다슬은 24초66을 기록, 이민정(시흥시청 24초45)에 간발의 차이로 뒤져 금메달을 놓쳤다. 유지

연은 24초94로 3위에 올랐다. 광주시청은 일반부 4×400mR(혼성)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한정미가 2관왕을 기록했다. 이준, 장지용, 한정미, 유지연이 나선 광주시청은 3분34초85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진천군청(3분35초08), 3위는 광양시청(3분46초57)이 차지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강다슬이 3관왕을 노렸는데 200m에서 페이스 조절에 문제가 있어 금메달을 놓쳤다. 계주 우승으로 2관왕에 만족하게 됐다"

면서 "한정미도 몸이 완전하지 않아 주종목인 400m를 뛰지 않고 계주만 뛰었는데 금메달을 2개 획득했다. 내일 정혜림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자허들 간판 정혜림은 22일 메달과 기록에도 도전한다. 한편, 조선대는 이날 남자대학부 4×100mR 결승에서 42초45로 한국체대(41초26)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땀다. 남자대학부 멀리뛰기에서는 조선대 김명하(3년)와 이건우(2년)가 나란히 금·은메달을 획득했다. 김명하는 7m70, 이건우는 7m31을 기록했다. 남자대학부 장대높이뛰기에 나선 조선대 김기훈(1년)은 3m00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체육중 핀수영 전국대회 종합우승

금3·은2·동1개 획득

광주체육중 핀수영부가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진행된 제29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1일 광주체육중에 따르면 여자 중학부 표면 100m 및 200m 경기에서 광주체육중 3학년 홍수진이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을 차지했다. 2학년 이지수는 표면 5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짝핀 100m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2학년 이우정은 표면 50m에서 은메달을, 표면 1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육중 핀수영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지은 감독은 "핀수영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안 교장은 "코로나19로 운동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핀수영부 학생들이 노력한 덕분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노력은 정직하고, 꾸준한 성실하게 노력해 준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내일의 기억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북
2관	명량정 코난: 비색의 탄환, 최면
3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4관	서북
5관	내일의 기억
6관	내일의 기억
9관	어른들은 몰라요
7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노바다, 고질라 VS. 콩, 울림
8관	미나리, 자살아보, 어른들은 몰라요 스프링 송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박혜상의 사랑스런 것들을 위한 노래

GAC 11시 음악산책1 박혜상의 사랑스런 것들을 위한 노래

일시 : 2021.04.29.(목)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324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